

아시아나, 인천공항 태양광발전 가동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제2격납고에 50kW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2월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2월2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16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도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2/03>